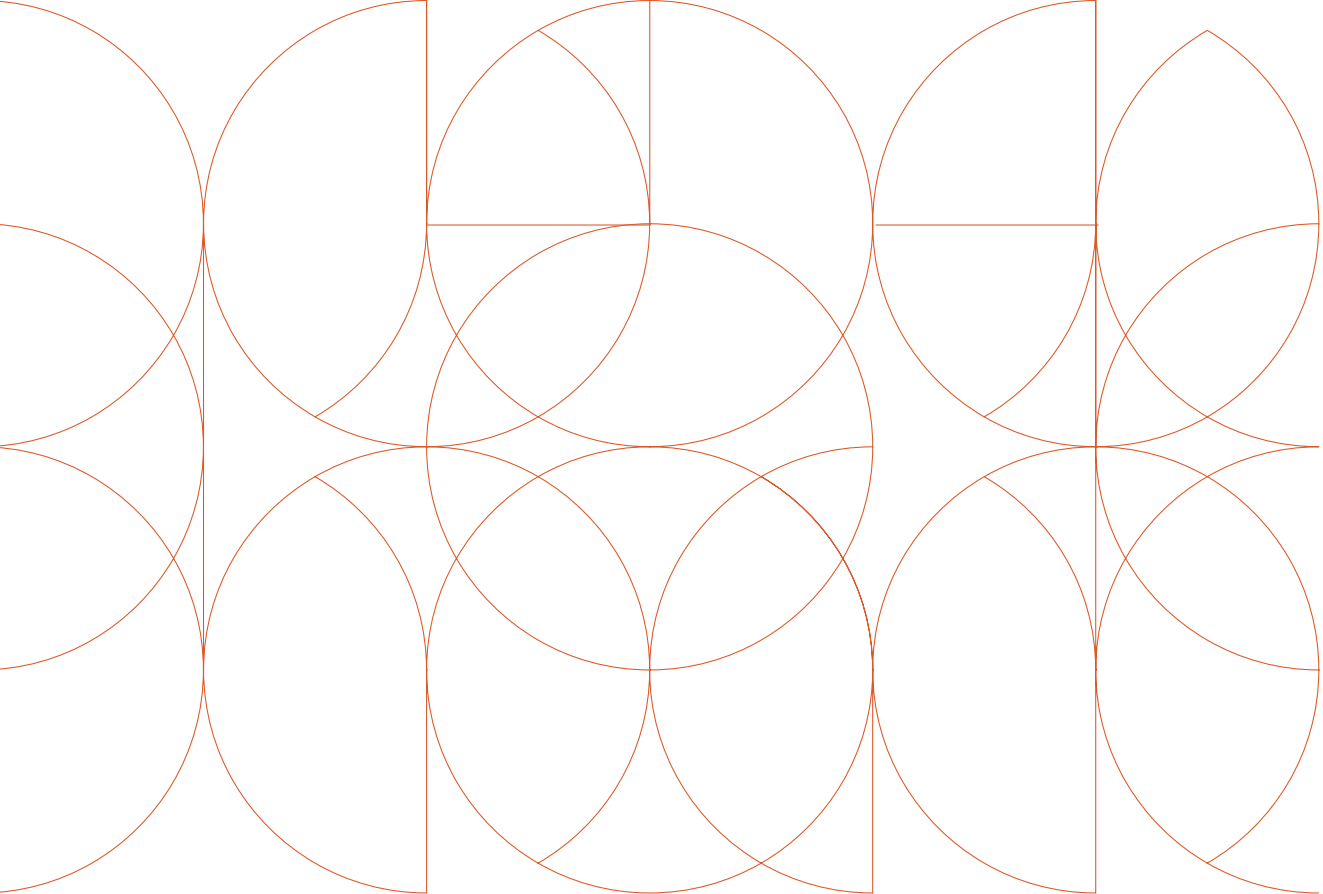


KBS S.O. 822nd

2026.1.16. FRI 20:00

롯데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

 02-6099-7400
- F

 02-6099-7416
- K

 www.kbssymphony.org
- f

 facebook.com/kbssymphony
- plus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

 kbssymphonyorchestra
-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차이콥스키 P. I. Tchaikovsky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 33'
	I. Allegro moderato 보통 빠르게 (19')	
	II. Canzonetta: Andante 노래하듯이: 느리게 (7')	
	III. Finale: Allegro vivacissimo 피날레: 매우 빠르고 생기 있게 (7')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베토벤 L. v. Beethoven	교향곡 제3번 E♭장조, 작품 55 ‘영웅’ Symphony No.3 in E-flat Major, Op. 55 ‘Eroica’	⌚ 50'
	I. Allegro con brio 빠르고 쾌활하게 (15')	
	II. Marcia funebre: Adagio assai 장송 행진곡: 매우 느리게 (15')	
	III. Scherzo: Allegro vivace 스케르초: 빠르고 생기 있게 (5')	
	IV. Finale: Allegro molto 피날레: 매우 빠르게 (5')	

- ✧ 총 소요시간: 120분
-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정명훈

“그는 영적인 지휘자”

〈르 몽드〉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2026년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과 교향악 무대에서 활약해 온 그는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감독,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2023년에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대 최초의 명예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바스티유 오페라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40여 종의 음반을 주요 레이블을 통해 발매했다.

그는 2008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임명되었으며,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다.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역대 최연소로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201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를, 2022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공화국 공로훈장 2등장을 수훈하였다. 또한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음악가상’을, 2013년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재단으로부터 ‘평생음악상’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음악평론가 협회에서 수여하는 ‘프랑코 아비아티상’을 1988년과 2015년에 각각 수상하였다.

Myung-Whun Chung
Conductor



©Marco Borggreve

바이올린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는 전세계적으로 드문 품격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매혹적인 예술성, 탁월한 음악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교, 그리고 연주의 진정성으로 호평받는 카바코스는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지휘자로서 무대에 서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독주회도 갖고 있다. 2022년 그는 그리스 출신 최정예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단 아폴론 앙상블을 창단하여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서울 롯데콘서트홀의 “클래식 레볼루션”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2025/26 시즌 주요 활동으로는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NHK 교향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과의 협연, 그리고 체코 필하모닉,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바르셀로나 심포니,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지휘가 있다. 또한 런던, 밀라노, 오슬로, 부다페스트, 자그레브 등지에서 독주회를 열며, 아폴론 앙상블과 함께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산탄데르 페스티벌, 런던 위그모어홀, 빈 무지크페라인 무대에도 선다.

그의 폭넓고 수상 경력이 화려한 음반 활동에는 리카르도 샤이와 함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데카), 직접 지휘와 연주를 병행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소니 클래식)이 있으며,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와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음반으로 에코 클래식 올해의 기악연주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액스, 첼리스트 요요마와 함께한 트리오 음반 시리즈는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아폴론 앙상블과는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했다.

아테네 출신인 카바코스는 매년 고향에서 바이올린 및 실내악 마스터클래스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2022년 그는 음악에 대한 공헌으로 아테네 아카데미의 제2급(문학 및 미술부)의 음악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2024년에는 바젤 음악원 바이올린 교수로 임명되었다. 현재 그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빌모트(Willemotte)’를 사용하고 있다.

Leonidas Kavakos Violin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P. I.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작곡	1878년
초연	1881년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독주 바이올린,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33분

19세기 러시아에서 표트르 차이콥스키(1840~1893)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 그는 러시아인으로서는 러시아 음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자유로운 환상과 낭만적 감수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만큼 스위스에 머물고 있던 1878년에 서유럽의 자연 속에서 솟구치는 영감을 붙잡아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머물게 된 이유에는 그에게 닥친 비극적인 현실이 있었다. 약혼자의 파혼, 연인의 배신, 원치 않는 결혼... 차이콥스키가 겪은 사건들은 그 누구라도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심지어 남다른 예민함으로 감정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표현력으로 이를 숨기지 못하는 예술가라면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 차이콥스키가 선택한 것은 도피뿐이었다. 스위스 레만 호수 동쪽에 있는 클라렌스로 떠난 그는 자신을 희롱하는 운명의 손아귀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고자 했다. 이 때 모스크바 음악원의 제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오시프 코테크가 찾아왔다. 그가 챙겨온 에두아르 랄로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스페인 교향곡>에 큰 감명을 받은 차이콥스키는 후원자 폰 메크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 “불같은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려고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초안을 11일 만에, 전체 총보를 2주 만에 완성했다. 심지어 이 기간에 2악장을 완전히 다시 쓰기도 했으니, (원곡은 <명상곡, Op. 42-1>이 되었다) 그야말로 단숨에 작곡되었다. 그 와중에 독주 부분에 코테크의 조언을 받으며 신중을 기하기도 했다. 과거에 <피아노 협주곡 1번>(1875)에서는 서툰다는 혹평을 들었고,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1877)에서는 초연자가 임의로 변주 순서를 바꾸는 만행을 당하는 등 협주곡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역시나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우선 코테크가 초연을 망설였다! 자신이 이 곡을 초연하면 차이콥스키와 동성애 관계로 의심을 살 수 있고, 또한 만약 이 곡이 실패한다면 이제 시작하는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헝가리 출신으로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장 레오폴트 아우어에게 초연을 의뢰했다. 아우어는 1875년에 차이콥스키에게 <우울한 세레나데>를 위촉했으며,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아우어에게 헌정했던 친분이 있었다. 또한 아우어는 차이콥스키의 현악 사중주를 연주한 적도 있었다. 그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초연을 흔쾌히 수락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차이콥스키는 취소 통보를 받았다. 바이올린의 특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작곡가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와 함께. 또다시 협주곡 트라우마가 엄습했다. “아우어 같은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연주 불가라는 판정을 받다니! 나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이 곡은 빛을 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었구나.”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포기하지 않았다. 차이콥스키는 이듬해인 1879년에 모스크바 음악원 부교수 출신으로 빈에서도 활동했던 아돌프 브로드스키에게 초연을 의뢰했다. 그는 아우어가 의뢰했던 <우울한 세레나데>를 초연한 인물이기도 했다. 브로드스키는 빨리 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도 2년이라는 긴 시간 숙고하여 이 곡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빈에서 열린 초연에서 큰 갈채를 받았다. 반면에 관현악은 소극적인 연주로 야유를 받았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 관현악을 작게 연주한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었다. 초연을 들었던 비평가 에두아르트 한슬리크도 “귀에서 악취가 나는 음악”, “바이올린은 연주된 것이 아니라 검고 푸르게 명들도록 두들겨 맞았다”, “러시아의 냄새가 난다” 등 혹독한 악평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브로드스키를 비롯한 여러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 곡의 진가를 알아보고 레퍼토리로 삼았고, 이 곡은 주요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제1악장 ‘보통 빠르게’ 관현악이 점차 고조되는 서주 후 바이올린 독주가 이어받고, 곧 화려한 제1주제를 연주한다. 다양한 표정으로 폭넓게 변화하면서 살며시 애조된 제2주제로 연결된다. 이 두 주제를 바탕으로 제시부-발전부-재현부로 구성되는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2악장 ‘노래하듯이: 느리게’ 관악기의 조용한 서주로 시작하고, 바이올린 독주는 조용히 구슬픈 노래를 부른다. 악음기를 사용하여 흐느끼는 듯 들리기도 한다. 중간 부분에서 잠시 희망의 빛을 보이지만, 다시 본래의 어두운 주제로 돌아오고 만다. 관현악으로 조용히 마무리한다.

제3악장 ‘피날레: 매우 빠르고 생기 있게’ 씬 없이 시작한다. 관현악의 힘찬 서주를 독주 바이올린이 이어받은 후, 관현악의 리듬에 맞춰 제1주제를 연주한다. 제2주제는 한껏 느려진 리듬에 여유를 부려보지만, 곧 다시 고삐를 조인다. 이 두 주제가 번갈아 등장하고, 열광적인 코다로 마무리한다.

베토벤 / 교향곡 제3번 Eb장조, 작품 55 ‘영웅’

L. v. Beethoven / Symphony No.3 in E-flat Major, Op. 55 ‘Eroica’

작곡	1803년~1804년
초연	1805년 4월 7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3, 트럼펫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50분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은 극복될 수 없는 귀족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자연스레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계몽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당시 여느 계몽주의자와 같이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생각했다. 그가 민중의 삶을 유린하고 전쟁을 삼아 세상을 어지럽히는 귀족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워 만인이 자유를 누리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1804년 봄, 베토벤은 이러한 나폴레옹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세 번째 교향곡을 완성했다. 그리고 표지에 ‘보나파르트 대교향곡’이라고 적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곡이 나폴레옹의 생애나 업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다. 베토벤이 생각하는 영웅의 이상형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이 새로운 교향곡을 프랑스 대사를 통해 나폴레옹에게 보내려고 준비했다. 그런데 5월 18일, 제자이자 비서였던 페르디난트 리스가 뜻밖에 소식을 전해왔다.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그래, 그는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도 사람의 모든 권리를 짓밟겠지. 단지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야. 이제는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거고, 독재자가 되겠지!” 이상이 깨진 베토벤은 분노가 차올라 제목을 긁어냈고, 2년 후에 ‘영웅 교향곡’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 그리고 “한 위대한 인간에 대한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초연은 그해 12월 이 곡을 헌정 받은 로프코비츠 공의 저택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며, 공개 초연은 1805년 4월 7일 ‘테아터 안 데어 빈’에서 이루어졌다. 공연평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알게마이네 음악신문은 곡을 축소하여 밝고 투명한 통일감을 갖게 해야 한다고 평했다. 사실 50분이나 걸리는 긴 길이는 당시 감상자들에게 드문 경험이었어서 부담이 되기는 했다. 그래도 베토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50분이 길다고? 두고 봐, 너무 짧다고 불평할 거야.” 이러한 과감함은 그가 자신만의 음악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의미다. 그는 이 곡에서 고전적 틀 안에서 구조의 경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시도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강한 개성과 고전미를 간직한 균형 잡힌 구성을 완벽히 조화시킴으로써 자신이 옳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된 주제 선율을 변형하여 다음 주제 선율을 만드는 방식은 이후 낭만시대에 흔히 사용되었던 순환형식을 예견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이 곡을 첫 낭만적 교향곡으로 보기도 한다.

제1악장 ‘빠르고 쾌활하게’ 영웅의 기상을 담은 화음 연타로 시작을 알린 후, 곧바로 첼로가 첫 주제를 제시한다. 사실 내림마장조 으뜸화음인 Eb-G-Bb을 단순히 펼친 것에 불과하지만 남다른 장엄한 분위기를 만든다. 제2주제는 오보에가 부드럽고 온화하게 제시하고 플루트와 바이올린이 바로 받는다. 이 주제는 제1주제의 변주라고 볼 수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이 두 주제로 소나타 형식으로 전개하는데, 재현부 직전에 제1주제를 미리 연주하는 호른의 도발은 매우 인상적이다. 현의 불협화음이 일으키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승전보처럼 들리기도 한다.

제2악장 ‘장송 행진곡: 매우 느리게’ 나폴레옹 사망 소식을 듣고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적절한 음악을 써두었지”라고 말했던 음악이 바로 이 악장일 것이다. 베토벤이 영웅의 비극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다단조이며,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파토스가 집약되어 있다. 절뚝거리는 붓점 리듬은 1악장의 제1주제 리듬을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아노 소나타 12번>(1801) 3악장 ‘한 영웅의 죽음에 붙인 장송행진곡’과 동일하다. 중간 부분에서 다장조로 밝게 전환되지만, 다시 첫 주제가 등장하며 푸가로 진행된다. 이렇게 여러 악상과 서로 다른 분위기의 연속은 눈을 감은 영웅의 일대기를 펼쳐 보이는 듯하다. 극적인 코다가 이어지고 체념과 한숨으로 얼룩진 주제로 쓸쓸히 마친다.

제3악장 ‘스케르초: 빠르고 생기있게’ 베토벤은 이 곡에서 처음으로 당시 교향곡의 관례였던 미뉴에트를 스케르초로 대체했다. 스타카토로 가볍고 익살스럽게 연주한 후, 트리오(중간 부분)에서 사냥 나팔과 같은 세 대의 호른 팡파르가 경쾌하게 울린다. 그리고 다시 첫 부분이 반복된다.

제4악장 ‘피날레: 매우 빠르게’ 온 전력을 모아 속공하듯 하강하며 돌진하는 서주로 시작한다. 하지만 현악기의 피치카토로 속삭이듯 재치있게 제시되는 주제 선율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서주와 대비된다. 이 주제 또한 1악장의 제1주제와 매우 유사하다. 이어서 10개의 변주가 마지막 코다로 마친다. 특히 제3변주는 발레곡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1801) 중 마지막 곡에서 가져온 것으로, 나폴레옹을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인간에게 혜택을 준 프로메테우스에게 비견하고자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와 달리, 이 교향곡의 결말은 당당하게 승리를 선언한다.

글 | 송주호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제823회 정기연주회

The Spirit of RUSSIA

러시아의 혼

2026.2.28.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라흐마니노프 / 죽음의 섬, 작품 29
S. Rachmaninoff / The Isle of the Dead, Op. 29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13번 b-flat 단조, 작품 113 '바비 야르'
D. Shostakovich / Symphony No. 13 in b-flat minor, Op. 113 'Babi Yar'

지휘
엘리아후 인발
Elijah Inbal
Conductor

베이스
그리고리 슈카루파
Grigory Shkarupa
Bass



주최/주관 KBS교향악단 | 티켓 R 110,000 S 90,000 A 60,000 B 30,000 C 10,000 | 예매 NOL ticket 1544-1555 예술의전당 1668-1352

Mahler

2026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I

KBS교향악단X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5번

2026. 3. 13.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말러 /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가곡
G. Mahler / Lieder aus <Des Knaben Wunderhorn>

말러 / 교향곡 제5번 c#단조
G. Mahler / Symphony No. 5 in c# minor

지휘 정명훈 Conductor Myung-whun Chung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Baritone Matthias Goerne

II

KBS교향악단X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4번

2026. 10. 2.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말러 / 뢰케르트 가곡
G. Mahler / Rückert-Lieder

말러 / 교향곡 제4번 G장조
G. Mahler / Symphony No. 4 in G Major

지휘 정명훈 Conductor Myung-whun Chung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 Soprano Christiane Karg

주최/주관 KBS교향악단 | 티켓 R 150,000 S 120,000 A 80,000 B 50,000 C 10,000 | 예매 NOL ticket 1544-1555 예술의전당 1668-1352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심수연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Irena Jakubcová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악장)

플루트 Tomer Amrani 수석

클라리넷 조성호 수석

호른 고영중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 - 인턴십 3기

제1바이올린 권예진 김가연

제2바이올린 박선경 임정민

비올라 송경민 이태형

첼로 신소담

바순 심충현

호른 선수경

트럼펫 박찬영

트롬본 임상원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우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 악기담당 | 단원 유재식 정오준 | 악보담당 |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 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윌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권정숙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종윤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옥균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양영은 KBS 보도본부 기자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종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웅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희재 노무사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원희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한국산업은행 SODA		
Nocturne	교보문고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9 BLOCK		



Life ON Sealy

오늘의 당신을 지지합니다

선피침대 구매문의 : 1670-2152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